****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처음 [스틸만 대학](https://stillman.edu/)에 도착했을 때, 존이콰 비반스와 레이욘드레이 로버츠는 바하마 열대섬의 고향집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앨러바마도, 음식도, 학우들도, 이 대학의 미국장로교 전통도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스틸만 대학의 합창단과 학장인 신티아 워릭 박사는 존이콰와 레이가 상반된 문화를 뛰어넘어 이 대학으로 오게 한 강력한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합창단과 존이콰와 레이는 공통된 기독교 전통의 음악을 통해 기쁨과 약속을 전달하고 싶어했습니다.

앨러바마 주 터스칼루사에 자리잡은 스틸만 대학은 터스칼루사 제일 장로교회 목사인 찰스 앨런 스틸만 박사가 인도하던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1876년에 설립되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역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확대된 요구와 사명으로 대학은 "학문적 탁월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인종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리더십과 섬김을 준비하도록 하는 강력한 전통을 유지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스틸만 대학의 학생과 그 구성원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고안된 경험적 학습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christmas-joy/)은 스틸만 대학이 재능있고 유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비반스는 2019년 늦여름, 허리케인 도리안이 있은 뒤, 미국장로교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안은 그랜드 바하마를 강타하여 비반스의 고향 섬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두 학생이 학교에 다니느라 고향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재해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학우들과 교직원 및 학교 당국에서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원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들이 성탄절까지 가족과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실, 워릭 총장은 이 재난으로 학생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장로교 선교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교국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국장로교의 이러한 도움으로 존이콰와 레이는 대학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청년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랜드 바하마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허리케인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후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미국장로교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존이콰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두 학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미국장로교의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레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후원으로 얼마나 많은 이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특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 우리의 헌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한다면, 이것이 모여 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광대한 은혜의 하나님, 성장해가며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사역들의 관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의식으로 이 은혜를 확장하게 하소서.* ***아멘****.*